



절주문화에
주류업계
무알코올 공략
L1

metro®

Life

흑백요리사2 귀환
편의점·이커머스
IP경쟁 치열
L2



“부정적 이미지 깨고, 피부도 마음도 편안한 공간 만들고파”

속깊은 人터뷰

박 신 영 더결의원 원장

K뷰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의료관광 지출이 올해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보톡스, 필러 등을 중심으로 한 노화 치료는 전체 절반(49%)을 차지한다. 피부과가 연간 1조원 규모의 외화 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이 수효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서 피부과를 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하다.

피부과가 경쟁적으로 늘어나면서 '진료'보다는 고가의 '시술'이 우선인 병원이 확산되고 있는 탓이다. 치료를 받으려 방문했던 피부과에서 영업을 당한 경험이 쌓이다보면 피부과를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해외에선 한국 피부과가 세계 최고라고 여기는 반면, 정작 국내에선 잘 모르면 텃터기 쓰는 곳, 비싸고 아픈 곳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7월 서울 반포동에 개원한 '더결의원'은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깨는 곳이다. 박신영 더결의원 대표원장은 시작부터 '메디컬스파(Medical Spa)' 개념을 내세웠다. 아프고 비싼 시술을 원하는 병원보다, 개인에 맞는 편안한 관리를 통해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30대 초반 젊은 여의사의 첫 개원이고, 그래서 더 당찬 도전이다.

박신영 원장은 “피부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고, 피부 관리, 시술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싶다”며 “지속 가능한 치료와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고객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병원 같은 느낌이 없다.

“개원을 준비하면서 피부과 인테리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업체들을 일부러 피했다. 호텔 로비 같은 느낌으로 꾸며진 요즘 피부과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피하고 싶어서였다. 고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 ‘더결의원’은 무슨 뜻인가.

“피부과 트렌드에 장비와 미감 등은 유행을 타지만 모든 관리는 결국 고유의 아름다움, 피부 ‘결’에 대한 니즈로 돌아올거라고 생각했다. K뷰티가 글로벌화 되는 시점이지만, 외국인이 발음하기 좋은 이름보다 오히려 한국 고유어를 쓰고 싶었다. 더(the)와 결을 결합한 순수 한국어로 만들게 됐다.”

- 기존 피부과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나.

“요즘 강남의 유명 피부과는 시술만 받으러 가는 곳이라는 생각에 장벽이 좀 높다. 시술의 종류도 너무 많아 뭘 해야할지 모르고 갔다가 바가지를 쓸까 하는 걱정도 크다. 피부과 시술은 대체로 비싸고, 통증이 심하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피부과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이런저런 시술을 권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



박신영 더결의원 원장이 서울 서초구 더결 클리닉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K-뷰티 돌풍에 피부과 의료관광 늘어
비싸고 아픈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 강해
시술 우선인 병원보다 힐링 제공하고파

1인체제 병원… 직접 상담부터 시술까지
시술시간 짧고 통증 적은 관리부터 권해

1대1 관리에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높아
연말·연초엔 ‘바르는 스킨 부스터’ 추천
편하게 찾아와 좋은 경험 받는 곳 됐으면

로 알고 있다. 여러가지 시술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피부는 물론, 몸에도 큰 스트레스가 된다. 무엇보다 어떤 시술이 내 피부에 잘 맞는건지 알 수가 없다. 부작용이 발생해도 어떤 시술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파악이 어렵다.”

- 더결의원이 차별화 되는 부분은.

“가장 큰 차이점은 원장 혼자 시술하는 1인 체제라는 점이다. 고객 한명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는 단점도 있지만, 대표원장이 모든 선(先)상담을 진행하면서 관리, 시술 계획을 직접 짚는 점에 만족도가 높다. 실제 이루어지는 관리, 시술도 상담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원장은 잠깐 진료만 하고, 나머지는 상담 실장이 담당하는 요즘 피부과들과 다른 점이다.

또한 더결의원은 고객에 맞는 편안함을 추구한다. 고객들이 동네 병원처럼 편하게 찾아와 원장과 수다도 떨며 상담을 하는 곳이다. 신사동이나 압구정동과 같이 피부과 경쟁이 심한 곳을 떠나 반포에 문을 연 것도 이 때문이다. 굳이 신사, 압구정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같은 퀄리티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었다. 너무 과한 진료나 시술을 한꺼번에 권하지도, 진행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편하게 상담을 받고, 우선 통증이 없고 바로 일상 생활이 가능한 관리부터 하기를 권한다. 아프지 않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효과를 낼 수 있다. 비싸고 과한 시술을 한 번 하기보다 평소에도 자주 관리를 받으며 힐링도 하고 조금씩 예뻐지는 것을 추구한다.”

변화의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피부관리를 받던 고객들이 점차 보톡스와 같은 가벼운 시술도 시도하면서 자신의 피부에 맞는 관리법을 찾아가고 있다. 만족도가 높아 지인과 가족들을 데려오는 고객도 늘었다.

- 어떤 시술을 권하고 있나.

“관리만 받던 고객들이 욕심이 생기면 우선 보톡스와 같이 시술 시간이 짧고 통증, 부작용이 적은 것들부터 권

한다.월 별로 이벤트로 많이 진행하고 있어 그중에 맞는 것들을 추천하기도 한다. 대체로 통증이 적고 가격 부담이 적은 시술이다. 남성분들의 경우 일단 수염 제모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제모를 하고 나면 깔끔해지고 피부결도 많이 개선된다.”

- 관리는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은가.

“일반적으로 30대부터는 집중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보톡스는 주름을 예방하는 차원이지, 이미 주름이 생기고 나면 효과가 떨어진다. 피부 관리의 목적은 노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데 있다. 과한 시술을 한꺼번에 하기보다 자주 피부과를 찾아 관리를 꾸준히 받는 것이 효과가 높다.”

- 외국인 고객들도 찾아오나.

“요즘 K뷰티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업화된 병원을 피하고,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병원을 찾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검색을 해서 우리 병원을 찾아온다. 원장인 내가 직접 영어로 상담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관리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다. K뷰티가 실제로 만족스럽다고 느끼면 한국에 대한 인상도 좋아지고, 또 찾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 원장은 K뷰티 시장이 커지면서, 피부과가 만드는 산업 창출 효과는 점차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피부 시술이나 관리에 집중하는 피부과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거두고, 유망한 산업군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K뷰티의 성장을 느끼나.

“K뷰티 분야에 한국 의사들이 내는 경제적 인 효과가 BTS 못지 않다고 생각한다. 피부과를 포함한 미용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여전히 있다. 관리, 시술만 하고 돈 밖에 모르는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 같아 아쉽다. 하지만 실제로 K뷰티 관광을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 연말, 연초 겨울에 추천할 만한 시술은.

“연말, 연초에는 모임이 많기 때문에 우선 회복 기간이 필요 없는 ‘위코 우노(WiQO Uno)’를 추천한다. 주사 시술 없이, 특화된 기기를 통해 피부로 침투 시키는 ‘바르는 스킨 부스터’다. 통증이 전혀없고 일상 생활도 바로 가능한데 한 번만 해도 얼굴에 광이 나고 각질 관리도 잘 된다. 3회 정도 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다. 리프팅을 원한다면 모노실이라고 해서 실 리프팅을 무서워 하는 사람들이 시도해볼 만한 시술이 있다. 점이나 잡티 제거도 겨울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연초 바쁜 약속들이 끝나고 나면 병원을 찾기 좋은 시점이다.”

- 앞으로 어떤 병원을 만들고 싶나.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서 피부 관리, 시술에 입문할 수 있는 동네 병원을 만들고자 한다. 매출을 급격히 높여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와 관리를 받고, 좋은 피부를 누리면서 마음도 몸도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더결의원 대기실 모습.

메트로 한줄뉴스



▲홍명보호, 결전지 북중미에서 ‘월드컵 최종 리허설’
▲김하성, FA 재도전 택했다…애틀랜타와 1년 294억원 재계약
/사진 뉴시스

▲키움, 외인 와일스·브룩스·아시아쿼터 가나쿠보 영입…알칸타라 재계약
▲임희정, 7년 연속 KPGA 홍보 모델…팬 투표 1위 차지

▲‘셔틀록 여제’ 안세영, 3년 연속 ‘BWF 올해의 여자 선수상’
▲‘미국행’ 확정까지 일주일 남긴 송성문…‘키움 선배’ 발차취 잇는다